

군산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 연속 선정

지역 주도형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군산시는 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2025 지역 주도형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군산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지역 주도형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사업 선정 후 관광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내 관광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관광협의체'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 혜택의 품질 향상 △실질적 지역 관광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관광협의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 군산항 여객 터미널

을 재구성하여 '군산 여행자 쉼터'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쉼터는 관광객에게 휴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재단은 올해 초 '군산문화재단'에서 '군산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업의 범위를 넓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선정된 관광사업이 지역 문화와 관광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돼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정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 · 주관하는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가갸호호' 사업이다. 재단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4,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영유아부터 중장년층, 다문화가정과 조손가정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이름인 '가갸호호(家加好好)'는 '가족이 함께하니 더없이

좋아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의미이다.

재단은 도서관,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접근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두 가지 사업 선정으로 총 1억9,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군산 지역의 문화와 관광 편의 제공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사업들을 통해 군산 관광의 불편 요소를 개선하고, 관광객들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문화관광재단 (☎063-443-4809)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할머니 여고생들, 배움에 '날개 달다'

정현을 익산시장, 함열여고 시니어반 찾아 학습환경 살펴

평균 나이 69세 어르신 16명, 시니어반 편성해 학업 매진

익산시가 배움에 도전하는 어르신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다. 시는 17일 함열여자고등학교 시니어반 교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송혜영 함열여자고등학교장, 시니어반 학생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정규 교과과정 에 시니어반을 편성한 함열여고에는 평균 나이 69세(최고령 83세, 최연소 52세)의 학생 16명이 열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시니어반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학습환경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장거리 거주자의 통학 편의를 위한 교통 지원과 휴식 공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우선적으로 남산면 거주 학생 3명에게 통학용 택시를 지원하고, 통학버스 등 안정적인 이동 수단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 측과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행정 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청렴주의보 발령... 공직기강 다잡는다

대선 앞두고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규정 전파... 특별점검 병행해 공직기강 해이 · 부패행위 방지

익산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과 부패방지에 나선다.

익산시는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7일 오후 2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 청렴 시책이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선거법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한다.

명절,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해이와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로 발령된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 금지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중립 의무 △선거 운동 및 관여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공직기강 특별점검도 병행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공직기강 해

이 행위 예방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이권 개입, 금품 · 향응 수수를 비롯한 비리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렴주의보는 선거철 공직자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 사소한 행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직기강 특별점검도 병행해 청렴도시 익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현장점검 실시

지질 유산 훼손 여부 · 안전시설 설치 상태 · 접근성 등 중점 점검

군산시는 지난 16일,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내 주요 지질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고군산군도의 지질 유산 보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최근 제기된 환경 및 개발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래는 방축도, 명도 등 도서 지역을 탐방하려고 했으나 기상악화로 이번

에는 탐방객이 집중되고 있는 주요 명소를 우선 점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장에는 군산시 부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6명이 참여하였으며, 야미도, 신시도, 장자도 대장봉 등 고군산군도의 주요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지질 유산 훼손 여부, 안전시설 설치 상태, 접근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야미도와 신시도 일대에서는 접근 동선의 안전성과 안내판 배치 적절성

등이 검토되었으며, 탐방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또한, 선유도 망주봉과 장자도 대장봉 일대에서는 효과적인 해설 및 교육 콘텐츠 제공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이루는 지질공원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로컬대학 · 해양바이오 지역상생 '맞손'

국립군산대학교 · KSC · 거품환경기술, 업무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가 17일 (주)KSC, (주)거품환경기술과 함께 글로벌대학의 성공적인 추진 및 해양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농생명융치 12헥타르(ha) 부지를 활용해 기능성 작물(슈퍼푸드) 및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대규모



재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립군산대 임기욱 총장 직무대리 · 오정근 글로벌대학추진단장 · 위 휘 기획처장 직무대리 · 한세민 대외협력본부장과 (주)KSC 채두병 기술이사 · 김현정 총괄이사, (주)거품환경기술 정승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군산대와 (주)KSC, (주)거품환경기술은 △새만금 12ha 부지를 활용한 기능성 작물 및 바이오

매스 재배 사업 공동 추진 △기술개발, 실증연구,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전문 인력 교류 및 지식 확산을 위한 공동 연구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욱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 바이오 에너지와 기능성 농생명 산업 분야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중장기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대학 추진의 기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백제왕궁박물관, '백제왕궁 익산을 품다' 18일부터 개최

익산의 풍경과 역사, 사람 이야기를 지역 예술인의 감성으로 풀어낸 전시가 백제왕궁박물관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은 오는 18일부터 특별 기획전 '백제왕궁, 익산을 품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의 개막식과 연계해 마련됐으며, (사)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와 협력해 기획됐다.

전시에는 지역 작가 10인이 참여해 '익산'을 주제로 한 회화, 도자기, 공예, 조각 등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고도 익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익숙한 골목길과 일상 속 정서까지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담았다.

특히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등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역사성과 일상의 풍경이 공존하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익산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백제왕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5월 18일까지 이어진다.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 기간인 4월 18~20일은 오후 11시까지 관람할 수 있어, 야행 체험과 전시 감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국가기준점 41점 일제조사 완료

익산시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국가기준점 41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기준점은 위치와 표고 등이 표시된 점으로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 국토의 주요 지점마다 설치돼 있다.

익산시는 산 정상 부근에 설치된 삼각점 34점,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수준점 4점, 관공서 · 공원 등 평지에 설치된 통합기준점 3점 등 총 41점에 대한 망실 · 훼손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예산절감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팀을 편성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망실이 확인된 삼각점 3점에 대해서는 국가기준점을 총괄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 정비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 · 금당 · 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